

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

G7의 대중국 압박과 미중 갈등이 주식시장에 몰고올 변화

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

2021-06-14

주식전략 이은택 02-6114-2958 et.lee@kbfq.com
 연구원 이혜원 02-6114-2990 hyewonlee@kbfq.com

G7 vs. 중국: G7회의 (+초청국: 한국/호주/인디아/남아공) 공동성명은 “중국 압박”에 중심이 모아졌습니다. ① 신장 인권 (강제 노동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), ② 홍콩 자율성 보장, ③ 대만 해협 문제, ④ 코로나 기원 2차 조사 등이 그것입니다. 이것은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

매력 없는 중국: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. 주목할 것은 2015~18년까지 비호감도가 지금까지처럼 높진 않았다는 점입니다. 불과 5년 전엔 한국에서도 ‘중국 호감’ 응답이 60%가 넘었습니다. ‘요우커’가 한국에 방문하던 시절입니다. 이것을 보면, 중국시장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을 때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중국시장의 내수와 중후장대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. 이런 점은 ‘한국 (글로벌)증시와 중국증시의 디커플링’으로도 잘 드러납니다. 증시도 중국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.

[도표 1] 중국 ‘비호감도’ 설문조사: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땐 비호감도가 낮았다



자료: PEW research center, KB증권

미국시장: 반면 미국시장은 이전보다 매력적입니다. 한미 정상회의 당시 대규모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. 게다가 대북 협상 주도권도 점차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

개방이 답이다: 물론 중국도 아직 매력적인 시장이 있습니다. 중국 증시에서 급등하고 있는 ‘첨단기술시장’과 ‘금융시장’이 그것입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들 시장의 대외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비호감이 쌓이고 있는 중국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?

먼 얘기지만, 이런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‘중국의 시장개방’은 한국 증시에 항상 ‘텐 배거 (ten bagger, 10배 상승 종목)’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.

[도표 2] 주도주 (코스피 상대지수): 중국의 시장개방은 ‘텐 배거’의 탄생으로 이어졌다



자료: Quantwise, KB증권

세줄 요약:

1. G7회의의 공동성명엔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포함되면서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
2. 중국 ‘호감도’ 조사를 보면, 그래도 중국이 ‘돈이 되는 매력적인 시장’이었을 때 대중 호감도가 높게 나왔다
3. 지금의 중국 (내수/인프라)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. 결국 고민은 남은 매력적인 시장 (첨단기술/금융)의 개방 여부일 것이다



투자자 고지사항

-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